

백성희 교수의

“기독교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평

심인옥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교수)

본 논문은 보건의료 분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생명의료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시도된 논문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의 필요성에서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체생명의 신비파악, 생명의 인공적 조절 및 정보교류를 통한 인간 생명이외의 것들을 중요시 하는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생명의료 윤리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안락사, 장기매매, 죽음의 기준, 줄기세포연구, 유전자 진단 및 치료등과 같은 문제와 연구윤리, 낙태, 대리모등과 같은 출생과 연관된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생명의료 윤리 의식의 필요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 또한 생명의료윤리에 관심을 갖고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연적인 설명과 함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일관성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불변의 진리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해야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과학 및 기술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의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 안에 다시 실현시켜 창조된 본 모습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 논자는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의 논자는 급변하는 의료상황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올바른 생명윤리가치관과 의사결정의 자세 및 능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독교보건의료인들에게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 대학에서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추후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지닌 기독교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립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관련 선행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한 긍정적인 공헌은 아래와 같다.

1. 본 연구 결과에서 종교생활 참여도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생명의료윤리의식 함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결국,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도록 돕고, 생명의료윤리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공헌하는 바가 크다.
2. 기독교 가치관과 함께 생명윤리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세부적인 항목 중 인공임신중절, 태아진단, 안락사등과 관련하여 낮은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의료계열 교육과정에서 이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도 매우 중요한 공헌이다.
3.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이 인간생명공학과 관련된 유전학, 줄기세포, 유전자변형, 배아복제 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응답의 어려움이 파악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교과과정 개설 및 교육을 담당할 연구자 및 교육자의 양성 또한 시급한 문제로 파악된 부분도 매우 중요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논문의 필요성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들의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헌제시가 부족하여 설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졌을 때 이와 관련된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종교적 가치관이 부족한 대상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아쉬웠다. 이는 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교육 환경과 생명의료윤리의식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차이에 대해 연구대상자를 기독교대학과 비 기독교대학내에서의 보건의료계열학생 대상자를 확장하여 조사해 보고 결과에 대한 견해들을 참조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추후 기독교 대학 보건의료학생들의 종교적인 참여정도 외에 실제적으로 인간존중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수준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비교 결과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보건의료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올바른 기독교적 바탕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